

어린이 포교 '놀토'에 답 있다

본지 설문조사, "레크리에이션 좋아" 56%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동심잡기' 열쇠

어린이포교가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주5일제와 월2회 '놀토'(토요 휴업일) 시행 이후 사찰만이 실시 가능한 다양한 자연체험학습과 놀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어린이 법회 참여인원이 대폭 늘고 있다. 부산 금천선원의 경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10명밖에 안되던 어린이 법회 참가 인원이 최근 100여명으로 늘었다. 학부모들의 경우도 어린이 프로그램 실시사찰 솔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에 가서는 어린이 프로그램 실시 유무에 따라 신도들이 많고 적게 되는 사찰 양극화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6월 29~30일부터 7월 27일~28일까지 전국 4개 권역별로 실시하는 2550(06)년도 본·말사주지연수에서 '노는 토요일, 동심을 잡아라!'라는 주제의 교육시간을 잡아놓고 있다. 이 강의시간에는 (사)동륜의 어린이 교육연구소가 최근 사찰에서 응용가능한 프로그램 200여개중 골자로 실시할 수 있는 100여개를 소개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어린이 포교가 활성화의 활로를 찾은 것은 놀토시행등 제도적인 요인도 있지만 변화되고 있는 어린이 불자들의 신행에서 찾을 수 있다.

본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996년(564명)과 2006년(637명) 실시한 어린이 불자들의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신행의식

이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이 96년의 경우 80%가 부모에게 이끌려 절에 간다고 응답한 반면 올해 조사에서는 17.6%만이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절에 간다고 응답했다. 81.6%는 어린이법회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답했다.

또 96년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을 묻는 질문에 열불 33.8%, 절(108매) 26.2%, 법문 16% 등의 순으로 꼽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오히려 집에서 접이나 기도, 참선 등을 스스로 해 본적이 있다는 대답이 63%나 됐다.

어린이 불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시행이 주요하고 있는 것 또한 요인. 올해 조사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레크리에이션 및 놀이(56%), 법문(9.6%), 스님과의 대화(7.3%), 찬불가배우기(6.8%), 불교구연동화(5.5%)등을 들었다. 96년 응답자의 32.2%가 프로그램 자체에 흥미가 없으며, 68.4%는 불교에 입이나 오락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같은 현상에 대해 (사)동륜 정일훈 기획팀장은 "지난 10년간 어린이법회 운영이 다양해지고, 세속포교도 부모를 통한 간접포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포교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6면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4월 30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는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한마당 잔치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넘치는 기쁨 행복한 세상”

4월 30일 서울·대구 등서 연등축제... '세계적 축제' 자리매김

☞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4월 30일 서울을 비롯해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연등법회에서 봉축위원장 장관(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지혜와 자비로 무장한 보살행이 넘쳐나면 반목과 갈등의 아픔은 스스로 사라진다"며 "인류의 하나뿐인 별, 늘 푸른 지구촌이 오래도록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각성하는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발원하자"라며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 낭독을 통해 "이 끝없이 기쁜날 남과 북을 비롯한 해외의 불자들은 민족의 온전한 통일을 발원하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따라 쉽 없는 실천행에 함께 힘 모으기를 서원한다"라고 발원했다.

오후 7시부터 동대문야구장-탑골공원-종각-조계사로 이어진 제

등행진에서는 학동, 용동, 탑동, 어린이등을 위시해 수백 가지의 화려한 장엄물과 15만여 개의 등불이 서울 종로 밤거리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어 오후 9시 30분부터는 종각 사거리에서 안치환 거북이 정수라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연등음악회와 대동마당이 열려 축제의 흥을 한껏 돋우었다.

이에 앞서 정오부터 서울 조계사 앞 사거리에서 펼쳐진 불교문화마당에서는 7개국의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국제불교마당과 자원봉사, 자선바자, 문화체험, 사회복지한마당 등 행사가 열려 불자들은 물론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서울 지역만 연인원 30여만 명이 참석한 이번 연등축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났다. 한편 부산은 4월 29일 광주는 28일 각각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관련화보 16·17면 김주일·조용수 기자

교황청 봉축메시지 발표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인 마이클 피츠제럴드 대주교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4월 25일 "전세계의 모든 불자 여러분과 불교 공동체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는 내용의 경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편, 가톨릭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도 부처님오신날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조용수 기자**

부처님오신날 buddhanews.com 클릭하세요!
영상특집 '부처님의 32상'이 뜬다

지면 안내 **봉축특집 64면 발행**

A·

-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 어린이 신행의식 설문조사 3면
 - 통계로 본 어린이 법회 실태 4면
 - 어린이 포교 선택안 필수 5면
 - 나야 어린이 포교사 6면
 - 초파일날 절에 가면 선물 '한이름' 7면
- 동국대 건학 100주년 특집
 - 06학번 새내기들 흥기심 총장 만나다 13면
 - 각종단 대표 봉축범어 14~15면
- 양국화 극복 불교에서 찾는다
 - 프로로그/좌담 21~23면
 - 현장을 뛰는 사람들 24면

B·

- 불교의 경쟁력 진단
 - 1+1=3이 되는 효과 1면
 - 'SER-M' 분석으로 본 불교의 경쟁력 2~3면
- 어린이날 웰빙 음식 만들기
 - 큰스님 편안하십니까-천운 스님 16~17면
 - 특별정당, 명상과 정신과학 14~15면
 - 만화로 보는 부처님의 하루 20면
 - 한국 고승들의 탄생 이야기 21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우리도 부처님같이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 오신 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 오신 뜻을 가리며
개인은 더욱 행복해지고 가정은 더욱 평화롭고
국가는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중정도림법전

원로의장	종산	총무원장	지관
중앙총회의장	법등	교육원장	청화
호계원장	월서	포교원장	도영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